

지난주 침례 인수	2016년 인천 교회 나아갈 방향 모든 성도가 신성한 헌신 안에서 부흥되어 하나님-사람 생활을 살고 열매 맺는 해	2016 침례 인수
0명		12명
인천 교회 기도 제목		목의 요청 기도 제목
◎ 올해 인수 목표를 이루게 하소서. ◎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신실하게 가게 하소서. ◎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일으키소서. ◎ 새롭게 확장한 영종 지역을 축복하소서. ◎ 강화 그룹과 가평 교회를 축복하소서. ◎ 목회자세미나를 축복하소서.		- 독일의 중동 난민들에게 복음 전파 및 목양을 강화하시며 현지 통역자들을 얻으소서 - 주님의 사역을 위해 동역자들의 가족들과 건강을 돌보소서. - 성경진리사역원 교육관 신축을 위하여 주변 민원이 해결되게 하소서 -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일 안에서 성소에 대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 교회소식

《인천 교회 집회 안내》 1. 자매 집회 : 2016.4.14(목) 오전10시 연수동집회장소 2. 목회자 세미나 (예배소서) ① 일 시 : 5.31(화)까지 매주 오전 10시 ~오후3시 ② 장 소 : 인천 교회 학생센터 ③ 대 상 : 목회자, 복음친구, 성도들 ④ 회 비 : 30,000원(중식 및 교제비포함, 대학생은 회비 없음) 3. 전체 집회 안내 ① 일 시 : 4.17(주일) 오전 10시~오후12시20분 ② 장 소 : 공촌동 집회장소 4. 인천 교회 온전케 하는 훈련 집회 ① 일 시 : 4.23(토) 집회Ⅰ 오후 4시~오후 5시45분 * 저녁 식사 : 5시45분~6시45분 집회Ⅱ 오후6시45분~8시30분 4.24(주일) 집회Ⅲ 오후4시30분~오후 6시15분		② 훈련내용 : 복음 ③ 회 비 : 5,000원 ④ 장 소 : 공촌동집회장소 ⑤ 신 청 : 4.10(주일)까지 지역별로 취합하여 집사실로 신청 《기타 사항》 1. 결혼 소식 : 2지역 유영일형제, 김태경자매의 딸 헤미자매가 4.16(토)오후1시 한양대학교 GUEST HOUSE 1층 컨벤션 홀에서 결혼합니다. (지하철 4호선 한대앞역에서 하차 2번출구 (한양대 또는 게스트하우스 셔틀버스 이용) 2. 이번주 아침부흥 진도 : 2015년 겨울훈련 메시지 10	
---	--	--	--

◆

◆ 지난주 집회 인수 현황 (2016.03.28.(월) ~ 2016.04.03(주일))

지역	1지역 (83명)					2지역 (103명)					3지역 (100명)					4지역 (114명)					5지역 (94명)					6지역 (52명)					7지역 (18명)		계
그 룹	한인	외국인	영신	영신	영신	한인	외국인	영신	영신	영신	한인	외국인	영신	영신	영신	한인	외국인	영신	영신	영신	한인	외국인	영신	영신	영신	한인	외국인	영신	영신				
인수목표	120					157					144					154					146					82					40		803
주역상	18	13	17	16	11	8	6	14	14	17	10	11	23	8	22	21	18	24	15	16	8	7	14	14	7	14	10	14	10	8	564		
기 도	4	6	5	4	5		2	6	3	8	4	7	11		13	5	12	8	7	9	7	3	2	10	4	8	5	4		1	6	228	
그 룹	8	8	7	16	8	3	2	6	5	9	6	2	13		13	9	14	12	13	9	6	2	2	9	5	8	6	8	2	8	15	9	299
아침부흥	10	8	7	8	6	3																				2	10	23	16	13	13	8	157
어린이	11					18					12					21					14					7					5		88
아브라함						11					8					3					7										4		33
중고등부	8					5					11					15					16					9					3		67



인 천 교 회 소 식

WEEKLY LETTER OF CHURCH IN INCHEON

집사실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94번길 40	032-566-0190	2016. 04. 10. 16-15
홈페이지 주소 : www.icchurch.or.kr	FAX 032-567-0190	
	E-mail : triune@nate.com	

복합되신 영

출30:25 너는 그것들로 바르는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함 만드는 사람의 제조법에 따라 잘 복합된 향기로운 관유를 만들어라. 이것이 바르는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신성의 요소를 가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움직이셨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 1:2). 실질적인 것은 다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도 물론 실질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영의 요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의 요소는 하나님, 신성이다. 이 영은 신성을 갖고 있다. 즉 하나님의 어떠한심의 요소를 갖고 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창조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영은 신성의 성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0절에 따라, 창조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신성한 삼일성의 요소를 가진 여호와와의 영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사람을 접촉하기 위하여 오셨다. 여호와와는 사람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이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라는 칭호만을 보나,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도 보는데, 왜냐하면 이 장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한 사람과 접촉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와는 하나님이 사람과 접촉하실 때 사용되는 칭호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존재 동사의 형태에서 따온 것이다. 여호와와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계실 분이다. 「계셨고」, 「계시고」, 「계실」 이 모든 것은 존재 동사(being)의 변화형들이다. 사실상 존재 동사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분은 홀로 계시고, 계셨으며, 계실 것이다. 그 분만이 영원하시고, 자존하시는 분이다. 존재 동사는 근본 동사이다. 모든 것은 이것에 달려 있다. 예를 들면, 먹는 것은 존재하는 것에 달려 있다. 만일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겠는가? 수천을 헤아리는 다른 모든 동사들은 이 유일한 동사인 존재 동사에 근거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 분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며, 영원히 존재하시고 자존(自尊)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람과 관련된 분이 되시기 위하여 삼일 하나님-아버지, 아들, 그 영-이 되셔야 했다. 하나님의 칭호-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는 신격의 삼위, 즉 삼일성을 함축한다. 창세기의 라이프 스타디(Life-study)에서 우리는 창세기의 많은 부분이 세 사람-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들 이삭의 하나님, 결국에는 변화 받은 악랄자인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2016. 04. 10. 16-15
 032-566-0190 FAX 032-567-0190
 E-mail : triune@nate.com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관계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버지를 의미하고, 이삭의 하나님은 아들을 의미하고, 야곱의 하나님은 그 영을 의미한다. 사람과 관계된 하나님이란 여호와와는 삼일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와의 영은 신성한 삼일성의 성분을 가진 그 영이다.

성육신 안에서-거룩하고 신성한 본성의 요소를 가진 성령

성육신되시기 전에는 성령이라는 칭호가 사용되지 않는다. 성령이라는 칭호는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실 때, 즉 성령이 주 예수님을 잉태시키기 위하여 마리아에게 오셨을 때 처음으로 사용된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따르면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대답한다. 「거룩한 것(Holy thing)」으로 번역된 헬리어 단어는 또 「거룩한 자(holy one)」로 번역될 수 있다. 둘 다 맞다.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시기 전에는 본성적으로 거룩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한다. 또 주님의 천사는 요셉에게,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자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0절)고 말한다.

신약은 때때로 헬리어로, 「성령, 거룩」이라고 말한다. 이 표현은 성령이 거룩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 즉 여호와와의 영이 지금 더 전진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가진 성령은 하나님 자신인 거룩으로서 본성 안에서 거룩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위치적으로 거룩하실 뿐 아니라 본성적으로 거룩하시다.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거룩하시다.

그리스도의 부활 전에는 그 영이 아직 더 많은 요소들을 가진 복합적인 영이 되지 않음

요한복음 7장 39절은,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에, 그 영-다른 성분들을 가진 복합적인 영-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영은 처음부터 계셨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별 1:19)이신 그 영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 계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은 영광을 받으셨다(눅 24:26).

실제의 영

주님이 부활하신 후, 또 다른 보혜사이시고 실제의 영이신 그 영에 관한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졌다. 그분은 아버지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셨다. 기도 속의 이 분은 우리 안에 계시게 될 실제의 영이 될 분이였다. 그런 다음 주님은 계속해서 그분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것을 우리가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실 것임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실제의 영의 오심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영이시기 때문이다. 부활하시던 날에 주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요 20:22). 이것은 실제의 영, 즉 그 영의 다른 모든 요소를 담고 있는 그 영이셨다.

인성과 인생과 십자가에 못 박하심의 요소들을 가진 예수 의 영

사도행전 16장 6절에 따르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성령에 의하여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지 당했다. 그러나 7절은 예수의 영이 그들이 비두니아로 가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먼저 성령을 보고, 그 다음에는 예수의 영을 본다. 만일 우리가 7절의 문맥을 연구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고통 받았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예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셨다. 예수의 영에는 인성과 인생과 십자가에 못 박하심의 요소가 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인간적인 고통을 체험했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중대한 시기에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성령은 땅 위에서 사람으로 사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성육신 되신 분의 영, 즉 예수의 영이셨다.

부활의 요소를 가진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은,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9절의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의 요소를 가진다. 그 영의 칭호들은 어떤 사실들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신약에 사용된 그 영의 칭호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예수의 영 안에 성육신과 인성과 인생과 고통과 십자가에 못 박하심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영 안에 부활과 부활 능력과 신성한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성과 인생과 십자가에 못 박하심과 부활의 모든 요소의 무한한 공급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바울은 이 말을 쓸 때 감옥에 있었다. 그는 죄수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무한한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 그는 고통 받으셨던 분인 예수의 영과 부활하신 분인 그리스도의 영을 누렸다. 이 영은 바울이 고통 받을 때 그를 공급하고 지탱하게 해주어, 그로 하여금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가진 생명의 영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한다. 사실상 생명의 영이 신성한 생명의 요소를 가졌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생명의 영에서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갖는다.

신성한 생명을 분배하는 생명주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생명주는 영이 되셨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의문은 죽이는 것이나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구절들에 따르면, 그 영은 또 생명주는 영이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을 분배하는 그 영이다.

승천과 주권의 요소를 가진 주 영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한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이나 생명의 영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주 영을 말한다. 그 영의 이 방면에는 주권(lordship)이 포함되어 있다.

삼일 하나님의 누림의 요소를 가진 은혜의 성령

복합적인 그 영은 또 은혜의 성령이다(히 10:29). 은혜의 성령은 삼일 하나님의 누림과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요소는 은혜이다.

칠 배로 강화된 일곱 영

계시록 1장 4절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라고 말한다. 그 영은 생명을 분배하는 요소를 가질 뿐 아니라 강화된 요소도 가진다. 계시록의 일곱 영은 칠 배로 강화된 성분을 가진 그 영을 의미한다.

칭호들의 모든 요소를 가진 그 영 -모든 것을 포함한 영

그 영의 모든 방면들과 요소들을 함께 놓을 때, 우리는 신약에서 그 영이라고 말한 총체를 갖는다(롬 8:16, 23, 26, 27, 갈 3:14, 5:16-18, 22, 25, 벰전 1:2, 계 2:7, 14:13, 22:17). 성경이 그 책(the book)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은 오늘날 그 영(the Spirit)이다. 그 영은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과정을 거치신 복합적인 영이시다.

복합적인 그 영의 기능

복합적인 그 영의 요소들을 본 후에, 우리는 이제 그 영의 기능에 대해서 말해보자. 복합적인 그 영의 기능은 하나님의 거처와 기구들에 기뻐바르는 것이며(출 30:26-29),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기뻐바르는 것이다(30:30). 이것은 복합적인 그 영이 하나님의 건축과 제사장 체계를 위한 것임을 가리킨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과 제사장 체계를 갖지 못한다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주의 영과 성령에 참여하여 누림을 조금 가진다 할지라도, 복합적인 그 영의 어떠한 부분도 나누어 받지 못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건축과 제사장 체계를 위하는 사람들만이 복합적이고 만유를 포함하고 과정을 거친 그 영을 누릴 수 있다. 복합적인 그 영의 모든 요소들, 풍성한 모든 성분들은 하나님의 집과 제사장 체계를 위한 것이다.

〈출애굽기 라이프스타디 M161에서 발췌〉

활력 그룹의 부담 및 활력(3) - 활력화 됨

롬12:11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활력화되기 위해 먼저 주님과의 철저한 교통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우리는 활력 그룹을 산출하는 방법이 우리 각 사람이 앞장서서 활력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활력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과 철저한 교통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교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죄들을 철저히 자백하게 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헌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여, 지금 내 자신을 새롭게 당신에게 헌신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기도 생활로 이끌 것이다. 아무도 이 단계에 이르지 않고서는 무시로 기도할 수 없다. 우리가 교통과 자백과 헌신의 단계를 통과할 때 우리는 기도 생활에 들어간다. 이러한 기도 생활 안에서 우리 자신은 그 영, 곧 본질적인 영, 경륜적인 영, 만유를 포함한 영 안으로 기도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이 영을 따르는 것을 배우게 된다. 우리가 만일 이러하다면 우리는 참되게 활력적이다. 사실상 이 모든 것은 신약 안에, 특별히 바울의 서신 안에 계시되고 밝혀져 있다.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 주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분발됨

우리가 부정하고 악한 죄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택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생각해 보고 주님의 사랑을 숙고할 때, 우리는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며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으로 분발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활력화되게 할 것이다.

주님께 철저한 자백을 함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모든 실패와 실수와 잘못 행함과 범죄와 범법 등을 철저히 자백해야 한다.

주님과 또한 추구하는 성도들과 긴밀하고 친밀하며 철저한 교통을 가짐

주님과 또한 추구하는 성도들과 긴밀하고 친밀하며 철저한 교통을 가져야 한다. 주님과만 교통을 갖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우리는 성도들과도 교통 안에 있어야 한다. 함께 수고할 수 있는 동반자들을 얻어야만 한다.

성경의 본에 따르면 다니엘은 세 명의 동반자들이 있었다(단1:6). 여러분이 세 명의 동반자를 갖기를 격려한다. 장로들에게 동반자들을 달라고 요청하지 말라. 당신은 교통 안에서 당신과 동반자가 될 누군가에게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구하라. 그 후에 당신은 몇 사람을 얻을 것이다. 자동적으로 당신과 당신의 동반자들은 아주 좋은 소그룹이 될 것이다.

장로들은 조직적인 방식으로 그룹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역사하지 않는다. 장로들은 먼저 성도들이 활력화되도록 분발시켜야 한다. 당신이 활력화되면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깊은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당신은 당신과 한 그룹이 되도록 사람을 얻는 것에 대해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이것은 유기적인 그룹이 될 것이고 결국 이 그룹은 활력화될 것이다. 네 명의 성도들이 한 그룹이 되는 것은 충분한 숫자이다. 처음에는 그 이상의 성도들을 모으지 말라. 어느 정도 활력화된 이후에 여러분은 새로운 물고기들을 낚기 위해 나갈 수 있다. 네 명으로 구성된 유기적인 그룹이 활력화되었다면 다른 성도를 찾아서 이 그룹에 함께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새로운 물고기를 낚기 위해 나가는 것이 좋다.

주님께 자신을 다시 헌신함

교통 안에서 동반자들을 얻은 후에 당신은 주님께 자신을 다시 헌신하는 데 앞장서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미 자신을 헌신했을 수도 있지만 새롭게 헌신할 필요가 있다. 당신의 몸을 주님께 헌신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가르친 것이다.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 자신을 다시 헌신해야 한다. 그 후에는 이 시대를 분받지 말고 생각이 새로워져야 한다(롬12:2). 세상은 많은 시대로(엡2:2) 구성된 사탄의 체계이다. 시대는 현재의 최신의 사탄적인 체계 중의 한 부분이며, 분야요, 방면이고, 그 체계는 사람들을 강탈하고 점령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 사탄에 의해 사용된 것이다우리의 몸은 주님께 드러져야 하고, 생각은 새로워지고 주님께 점령되어야 하며 우리의 영은 불타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전 존재, 즉 영과 혼과 몸을 포함한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 완전히 점유되고 얻어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열심에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영 안에서 불타야 한다(롬12:11). 그 후에야 우리는 활력화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269-271p 발췌〉